



황강, 12기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강조

문제방향을 견지하고 책임을 다지며 감독검사와 효과를 강화하여 개혁전면심화를 한층 깊이있고 실속있게 추진해야

호옥정 주국현 참석

6월 26일, 성당위 서기이며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황강은 12기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옹근 하루 시간을 리용하여 우리 성의 개혁임무 추진 시달 상황을 청취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성당위 12기 5차 전원회의 제반 개혁임무의 실시를 착실하게 추진하며 문제방향을 견지하고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감독검사와 효과(功效)를 강화하여 개혁전면심화를 한층 더 깊이있고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 성장이며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인 호옥정이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요구를 제기했다. 성정협 당조 서기이며 주석인 주국현이 회의에 참석했다.

얼마전, 성당위는 11개 감독검사조를 파견하여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사업회보를 청취할 때의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예누리없이 시달하고 성당위 12기 5차 전원회의 개혁배치를 시달하는 등을 중점적으로 둘러싸고 전 성 각 시(市),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에 대해 현지 감독검사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각 감독검사조 조장들이 업무 상황을 보고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감독검사는 기층 일선에 심입하여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진실한 문제를 발견하여 예기한 효과에 도달했다. 각 시(市)는 자아성찰의 눈길로 작은 실마리에서 큰 교훈을 얻으며 기다리지 말고 개혁의 조치로 내생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성 직속 각 부문은 책임과 지도를 강화하여 각자의 '공성'과 '개성' 문제의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성당위,

성정부 감독검사실은 시종 균중들이 만족하는가, 기뻐하는가, 응답하는가를 검사사업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4불2직'(四不两直)으로 깊이있는 감독과 실사(实查)를 진행해야 한다.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대한 의의를 더욱 깊이 깨닫고 내외결합, 상하결합을 견지하며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사업의 폐환(闭环)을 형성하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선후로 성당위 상무위원 동지, 성정부 책임 동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성정협 당조 서기, 성법원 원장, 성검찰원 검찰장의 개혁임무 추진 실행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러 성급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고 책임감 있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각 분야의 개혁을 착실하고도 질서있게 추진하여 적극적인 진전과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회의는 시간을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기회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발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책임감과 긴박감을 한층 더 증강하고 개혁임무 목록에 비추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시기와 척도와 효과를 파악하고 중점을 단단히 틀어쥐며 전형을 일반화하고 참담계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하나 다그치면서 세밀하고 실속있게 틀어쥐어 당중앙과 전성 인민에게 합격된 답안지를 제출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길림의 개혁은 이미 심수구(深水区)에 들어섰으며 시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많은 문제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개혁을 진일보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해결해야 한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사업회보를 청취할 때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여 정치적 책임을 단호히 짊어지고 우로부터 아래를 이끌어 나가며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며 고품질 발전을 속박하는 모든 체제와 기제, 사상관념의 장애를 철저히 타파하고 단호히 개혁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정확한 치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새 지도자가 낡은 장부를 무시하는 것'(新官不理旧账)을 반대하고 개혁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문제를 해결하고 큰 중심으로 힘을 발휘하여 9개 중점전면항목의 시범과 선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각 분야의 개혁을 더욱 잘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해야 한다.

회의는 개혁의 효과가 좋으면 아닌지는 경영주제, 봉사 대상과 군중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시종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백성들 전에 서서 대중의 걱정거리와 시름거리를 해결하는 것을 개혁의 목적으로 삼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즉시 고치고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하며 시달할 수 있는 것은 다그쳐 시달

하는 것으로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

회의는 엄격하고 실속을 중시하는 기풍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 8항 규정 정신 심입 관철 학습교양을 전개하고 중앙 순시를 받는 것을 계기로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단호히 방지하고 극복하며 간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작품을 재빨리 전환하여 간부들이 규칙과 규률을 준수하고 청렴결백한 전제하에 대담하게 일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여러 성급 지도자들은 몸소 가르치는 것이 말보다 낫고 행동하는 것이 말보다 낫다는 것과 중요한 개혁을 직접 포지하고 중대한 방안을 직접 점검하며 관건적인 문제를 직접 조율하고 실행 상황을 직접 배치하며 개혁 결과를 직접 검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의 치적 심사 결과를 잘 리용하여 덕과 재능이 있고 담당이 있고 능력 있는 우수한 간부를 대대적으로 선발하고 선명한 지향성으로 간부들이 용감하게 중임을 짊어지도록 격려해야 한다. 자각적으로 당의 혁신 리론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개혁과정에 개혁을 배우고 개혁을 실시하며 개혁을 통제해야 한다. '15.5' 전망계획 편성의 기회를 단단히 틀어쥐고 여러 부성장들은 성 직속 관련 부문을 인솔하여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상급과 연결해 더욱 많은 지지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 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성 지도자, 성 직속 관련 부문 단위 책임 동지 등이 회의에列席했다.

/ 길림일보

길림왕청애국주의교양센터 새 간판 추가

'봉화'주제전시장을 동만항일전쟁력사기념관으로 개명



최근 길림성당위 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의 비준을 받고 길림왕청애국주의교양센터에 새 간판을 추가하기 시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여러 민족 인민들이 피와 생명으로 쌓아올린 위대한 항일전쟁 정신과 동북항일련군 정신을 과시하게 된다.

다음 단계에 길림왕청애국주의교양센터는 동만항일전쟁력사기념관의 전시 조정, 현판식 등 작업을 진행하여 왕청 홍색문화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왕청에서 동만항일전쟁력사를 료해하고 혁명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길림왕청애국주의교양센터

지역에서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이 쓴 웅장하고 감동적인 항일 서사시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여러 민족 인민들이 피와 생명으로 쌓아올린 위대한 항일전쟁 정신과 동북항일련군 정신을 과시하게 된다.

다음 단계에 길림왕청애국주의교양센터는 동만항일전쟁력사기념관의 전시 조정, 현판식 등 작업을 진행하여 왕청 홍색문화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왕청에서 동만항일전쟁력사를 료해하고 혁명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길림왕청애국주의교양센터

중인(장춘) 국제입직시범구

직업교육단지 대상 질서있게 추진중



중한(장춘) 국제합작시범구 직업교육단지 대상이 한창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 대상은 장춘리공대학이 시범구에 건설하는 새로운 캠퍼스로서 국제화, 고수준의 직업교육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조력하게 된다.

/ 길림일보

발해국 력사 연구좌담회 연길에서

유적 보호에 대한 혁신적인 구상 제시, 연변의 력사문화자원 활용 방안에 귀중한 방향 제공



6월 25일 오전, 발해국 력사 연구좌담회가 연변호텔에서 소집되었다. 이번 좌담회는 변방의 력사문화 연구를 심화하고 발해국 력사문화의 내포를 깊이 발굴하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다. 성내의 발해국 력사 연구 분

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와 학자 등 100여명이 좌담회에 참가했다.

발해국은 기원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동북아시아에 자리잡고 있던 '해동성국'으로서 당왕조가 변방을 운영하고 민족 융합과 문명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관건적인 연결고리였다. 그

력사는 고대 중국의 변경지리 지혜와 다원화 문화의 융합, 동북아시아 지역 문명의 상호작용을 담고 있다. 발해국 문물 발굴이 가장 집중되고 보존이 가장 완벽한 중점지역중의 하나인 연변주는 발해국 동경통원부 유적, 둔화시 룡정산 고분군, 발해 중경성 유적 등

전해의 발해국 문화유산 자원을 갖고 있기에 관련 연구 사업을 전개하는 데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좌담회에서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광국이 연변주 발해국 력사문화자원 보호 리용 상황을 회보하고 연변대학 관련 책임자가 학교의 발해국 력사 연구사업 진행 상황과 다단계의 연구 방향을 소개했다. 좌담회 교류 시간에 중국변강연구소, 동북사범대학, 흑룡강대학, 통화사범학원 등 단위들에서 온 11명의 권위적인 전문가와 학자들이 발해국 력사 연구의 관건적인 문제, 유적지 보호 및 활용의 어려움, 력사문화자원 전환의 혁신 경로 등 의제를 둘러싸고 깊이있는 교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의 발언은 발해국의 즉원적 맥락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적 보호에 대한 혁신적인 구상을 제시하고 나아가 연변의 력사문화자원 활용 방안에 귀중한 방향을 제공해주었다.

좌담회에 앞서 24일 오후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연변박물관과 훈춘 고성촌 사찰 유적, 팔련성 유적, 발해고진 등지를 현장 답사했다.

/ 김파기자

제 22 회 장춘자동차박람회 7월 12일 개막

장춘자동차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제 22 회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이하 '장춘자동차박람회')가 7월 12일에 장춘동북아시아국제박람센터에서 개막되어 10일간 펼쳐진다.

이번 장춘자동차박람회는 '특색 브랜드 구축, 자동차 문화 전시, 융합 혁신 촉진, 산업 발전 추진'을 취지로 국제 일류 모터쇼를 만들고 국제 자동차 도시 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신질이 미래 선도'를 주제로 '시장화, 전문화, 국제화'의 위치를 견지하며 자동차산업의 '신기술, 신제품, 신추세'에 초점을 맞추어 자동차 업계와 소비 시장의 맥박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 전시회 플랫폼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세계 최첨단 자동차 기술과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할 뿐만 아니라 업계 교류 협력의 량질의 교량 구축에 더욱 주력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장춘 자동차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번 장춘자동차박람회는 '오프라인 전시 + 온라인 전시'의 방식으로 자동차문화, 자동차과학기술, 자동차운동, 상호작용체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융합하여 전시를 진행하게 된다. 그중 오프라인 전시 총면적은 17만평방미터로서 완성차 전시관 4개, 특색전시구역 3개, 상호작용체험구역 2개, 실외전시구역 1개를 설치하게 된다. 온라인 전시회는 '장춘운기박'(长春云汽博) 앱을 통해 핸드폰 단말기의 '클라우드 전시', '클라우드 생방송', '클라우드 발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관중과 관광객들에게 전시 관람 공략, 상업관광 정보 및 식사, 숙박, 여행, 놀이, 구매가 일체화된 서비스 안내를 제공하게 된다.

이 밖에 자동차박람회 기간에 또 일련의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다양한 계절 활동들을 출시하여 장춘 자동차박람회의 전문성, 권위성, 국제성을 한층 더 두드러지게 하고 전시회 플랫폼의 기능을 충분히 방출하여 전시회 효익을 확대하게 된다.

/ 길림일보